서울 구민신문

(2026년 9월 28일 월요일 5면)

"기후위기 대응, 모든 송파구민을 위한 복지이다"



이희승 송파구의원 (잠실본·2·7동)

이희승 송파구의원(잠실본·2·7동)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폭염 등을 고려한 쓰레기 수거체계 개편 및 환경공무관의 안전, 자원순환과 온실가스 감축 등 송파구의 기후위기 정책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이희승 의원은 "생활쓰레기 문제는 주민의 삶에 직결된 민생 과제로, 특히 주거지와 상업지가 혼재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폐기물 발생과 적치 문제가 더욱 두드러진다"면서 "일부 자치구가 지역 특성에 맞춰 매일 수거 등 탄력 수거를 도입한 것처럼 송파구도 기후 특성을 고려해 폭염기 수거체계 개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생활환경을 지키는 체계 맨 앞줄에 있는 송파구 환경공무관은 정원 205명에 현원 116명으로, 2022년 123명보다도 줄었다"며 "위탁 전환이라는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직영 공무관과 위탁 노동자의 현장 노동강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점검"을 주문했다. 이의원은 이외에도 폐기물 감축량·재활용량·재사용량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연계한 자원순환 성과지표를 구축할 것,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정례적으로 측정하고 공개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모든 부서의 행정 기본 원칙으로 삼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